

무대에서 '제3자 변제안' 을 묻다



놀이패 신명이 정기공연 '소녀의 꿈' 을 연습하고 있는 모습.

<놀이패 신명 제공>

지난 3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공식적인 사과나 반성을 받지 못하고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을 전달받았다. 국내 기업들이 기부금을 조성해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진정성이 담긴 사과 없이 진행되는 피해구제는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작년 말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게 수여될 예정이었던 인권상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2022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서훈 수여 관련, 관계부처 간 협의 미비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는 취지의 한 줄 짜리 답변을 제시했다.

이렇듯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제3자 변제안' 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묻는 연극이 무대에 오를

'놀이패 신명' 제43회 정기공연
일본 강제 노역 피해자 배상
마당극으로 부조리함 드러내
1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예정되어서 이목을 끈다.

놀이패 신명(대표 정찬일)은 제43회 정기공연 '소녀의 꿈' 을 오는 11일(오후 3시,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신명은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3자 변제안의 부조리함을 마당극 형식을 통해 드러내려는 계획이다.

작품은 영상공모전 출품을 앞둔 다규감독 '용수철' 이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용 감독은 2017년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 승소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 수상까지의

성과를 담아낸 다큐멘터리를 준비한다. 출품을 앞두고 있던 할머니 정권이 바뀌며 피해 배상금과 국민훈장이 취소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영상 내용을 전면 수정하기로 하는데...

이어 청천벽력과 같은 3자 변제안 소식을 듣고 작중의 양금덕 할머니는 홀도한다. 수의사 안현지와 용 감독이 할머니에게 찾아와 간병을 하면서 10년 전 할머니와의 만남을 떠올린다.

작품 연출은 백민이 맡았으며 김혜선, 강근희, 정찬일, 소지원 등이 연기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3년도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광주시가 후원한다.

신명 관계자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억울한 삶과 현안을 조명하려 했다"며 "부당한 현실을 밝힘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네이버에서 사전 예약.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극장서 '가족극' 보며 무더위 훌훌~

5일 선물의 '안녕? 빨강머리앤' · 9일 영의 '비발디의 사계'

"오늘 나를 만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나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빨강머리앤' 중)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함의하는 가족극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감상하는 이의 기분을 밝게 만든다. 무더운 여름날 아이들이 해맑게 웃을 수 있는 작품이 있다면 더위도 저만치 물러날 것 같다.

전라남도문화재단은 올해로 4화째를 맞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2023년 도어린이페스타'의 일환으로 뮤지컬과 그림자극 등의 공연을 선보인다. 그중 '안녕? 빨강머리앤' 과 '비발디의 사계'가 먼저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먼저 극단 선물은 '안녕? 빨강머리앤' 을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및 오후 2시에 남도소리올림터에서 연다.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세계적인 명작 '초록지붕집의 앤'을 원작으로 그동안 도서,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에서 각색된 작품이지만 이번에는 어린이의 시선에 맞췄다.

고아원에 지내던 '앤'은 새로운 가족들을 만났지만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서 녹아드는 것이 쉽지 않다. 한편 초록색 지붕의 집에서 살아가던 앤은 친구 '다이애나'를 만나고 둘의 우정 또한 수난사를 겪는다. 학교생활도 만만치 않은데, 친구 '길버트'와 갈등을 겪으며 여러 에피소드들을 펼쳐 나간다. 작품은 리드미컬한 음악과 문학적 감수성을 더해 아이들이 즐기기에 좋다.

아울러 9일 같은 시간, 장소에서 극단 '영'은 그림자극 '비발디의 사계'를 연다. 극단은 '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안녕? 빨강머리앤' 공연 모습.

수 있는 연극을 표방해왔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비발디의 클래식 음악에 맞춰 펼쳐지는 이번 작품은 에블레 한마리의 모험을 초점화한다. 변화무쌍한 사계절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희망 가득한 여정을 담아낸다는 것. 여기에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가미하는 그림자 기법이 겹쳐져 이채로운 재미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19일에는 같은 장소 및 시간에 음악극 '하티와 광대들', 23일에는 체험뮤지컬 '빵 굽는 포포아저씨'도 감상할 수 있다.

전석 무료. 예매는 남도소리올림터 누리집.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문화재단에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매콤·달콤 '동시 한 접시 드실래요?'

박형숙 시인 동시집 발간...음식 소재로 동심 담아

음식을 모티브로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그 중에는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수필도 있다. 또한 음식을 토대로 역사와 문화, 예술을 융합한 다양한 인문학 서적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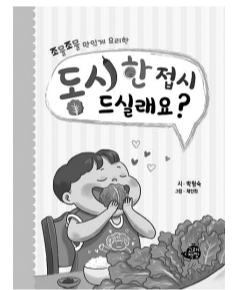
음식을 소재로 동심을 담아낸 동시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박형숙 시인이 펴낸 '동시 한 접시 드실래요?' (고래책방)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음식 관련 동시를 담았다.

'조물조물 맛있는 요리한'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동시의 맛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힘이 나고 키가 쑥쑥 자라나게 하고, 행복과 건강을 부르고 기쁨을 안겨주기도 해요. 그런데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페스트푸드나 배달 음식, 마트 간편식, 편의점 도시락 등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음식에는 단순히 살아가기 위한뿐만 아니라 사랑, 관계, 환경, 평화 같은 여러 가지 가치가 담겨 있어요."

"물에 잠겨 있는 해파리// 살짝 데치니// 고향 그리운 듯// 초록빛 얼얼// 채 썬 오이와 맛살/ 겨자장에 버무린/ 해파리냉채 한 접시// 바다까지 따라와/ 매콤새콤/ 짭조름한 향기"



위 시 '매콤새콤'은 여름 식욕을 돋우는 해파리를 맛깔스럽게 표현한 작품이다. '채 썬 오이와 맛살을 겨자장에 버무린' 해파리냉채에는 청량한 바다의 맛이 깃들여 있다.

이밖에 책에는 화채, 꽃게, 상추, 호박잎, 김치, 더덕 등 다채로운 음식 재료를 특유의 글썽썽으로 빚어낸 동시들이 담겨 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읽을 수 있다.

한편 아동문학가인 이경자 시인은 "음식을 동시로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마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쓴 동시들일 거예요. 지금부터 나랑 같이 동시를 읽어다 보면 시인이 음식을 어떻게 조물조물 동시로 요리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라고 평한다.

한편 박형숙 시인은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전남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시와사림'으로 등단했다. 지금까지 '이름도 많구나, 명태'를 펴냈으며 한국동시문학회, 광주전남아동문학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박화성소설상' 에 김혜빈 '그라이아이'

문학과지성사 선정...고대 한국인 미라 이야기 다음달 출간

올해 박화성소설상에 김혜빈의 장편소설 '그라이아이'가 선정됐다고 문학과지성사가 2일 밝혔다.

다음 달 출간될 예정인 '그라이아이'는 아일랜드 이탄지(泥炭地·해안이나 습지의 유기물이 묻히고 탄화된 지역)에서 발굴된 고대 한국인의 미라 '백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소설이다.

미라만 발굴된 이 미라는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다. 연구 결과 고대 한국인의 미라로 밝혀지자 국내

연구팀과 방송사는 팀을 꾸려 아일랜드로 떠난다.

제목 '그라이아이'는 '하얀', '늙은 여자'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다.

심사위원인 문학평론가 우찬제(서강대 교수)는 이 작품에 대해 "현실과 환상을 횡단하며 사면의 북화술사 같은 환상적 이야기꾼의 가능성을 실현한다"고 평했다.

수상자 김혜빈(29)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와 동 대학원 서사창작과를 졸업했다. 올해 동



김혜빈 작가

아일보 신춘문예에서 중편 '레드불'이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박화성소설상은 2021년 시작된 목표문학상 장편소설상의 새 이름이다. 이 상은 한국 여성 작가 최초의 장편소설 '백화'를 쓴 목포 출신 작가 박화성(1904~1988)을 기리는 문학상으로, 올해부터 목포시와 문학과지성사가 함께 개최한다. 상금은 7천만원이며 당선작은 문학과지성사가 단행본으로 출간한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